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66128)

| | | | | | |
|-------------------------|----------|----------------|----------|----------|----------------|
|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 | |
|--------------|--|--------------|--|
| 투자자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p>1. 투자대상자산 :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미국의 상장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추가지수인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p> <p>2. 투자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p> <p>또한,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를 최소화할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 수익률 기준)</p> <p>[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p> <p>추적오차율 = 표준편차(과거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p> <p>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p> <p>*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 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함.</p>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집합투자업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1577-1640) (위탁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 | |
| 모집(판매) 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
| 효력발생일 | 2019년 07월 04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종류(Class) | 가입자격 | 수수료율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종류A | 제한없음 | 1.0% 이내 | - | - |
| 종류A-e | 온라인 가입자 | 0.5% 이내 | - | - |
| 종류C | 제한없음 | - | - | - |
| 종류C-e | 온라인 가입자 | - | - | - |

| 종류(Class) | 보수(연, %) | | | |
|-----------|----------|------|------|-------|
| | 판매회사 보수 | 운용 등 | 기타비용 | 총보수비용 |
| 종류A | 0.7 | 0.58 | 0.07 | 1.35 |
| 종류A-e | 0.35 | 0.58 | 0.07 | 1.0 |
| 종류C | 1.0 | 0.58 | 0.07 | 1.65 |
| 종류C-e | 0.5 | 0.58 | 0.07 | 1.15 |

| | | | |
|---------------|--|--|--|
| ※ 주석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에 기재된 종류(클래스)는 대표적인 종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그 외의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보수의 지급 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매입 방법 | 1.17시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환매 방법 | 1.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

| | |
|-----|--|
| 기준가 | <p>-산정방법 :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p>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인 미국의 상장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가지수인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의 수익률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 기본운용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다우존스공업평균지수(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의 지수의 구성종목에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추적오차를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보수차감전, 세전 수익률 기준)

[추적오차(Tracking Error)관리방안]

추적오차율 = 표준편차(과거1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 - 과거1년간 벤치마크의 일간 수익률)

이 투자신탁은 상기 방식으로 계산된 추적오차율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며, 추적오차율 허용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추적오차율이 10% 이하가 되도록 리밸런싱합니다. 다만, 상기 관리방안이 추적오차 최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율 계산 시 일간 수익률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추적오차율을 연환산하여 산출함.

*비교지수 :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지수: 다우존스(Dow Jones)사가 작성하여 발표>

- 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등의 시장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의 시장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 2) 미국산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지수로 The Wall Street Journal 편집자들에 의해 선정됨 (비교지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djindexes.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19.05.31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성과보수가 약 정된 집합투자 기구 | |
|-----|----------|-----|------------------|------------|---|--------------------------|---|
| | | |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수 | 운용자산 규모 | | | |
| 김철민 | 1975 | 본부장 | 19개 | 1,815억원 | (99년~11년) 현대증권 IT본부/리서치센터 (11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 부문 | - | - |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19.05.31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성과보수가 약 정된 집합투자 기구 | |
|-----|----------|----|------------------|------------|---|--------------------------|-----------|
| | | |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수 | 운용자산 규모 | | | |
| 김명준 | 1984 | 팀장 | 10개 | 3,507억원 |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 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 공학부문 | 1개 | 501억 원 |

* “부책임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성 명 | 세부 내용 |
|---------------|------------|--|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 Ryan Coyle | 과거경력 : Senior Research Analyst (Consumer), Caerus Global Investors Senior Associate Analyst (Consumer, Retail, Services), Stadia Capital Financial Analyst, Bank of America Securities |

5. 투자실적 추이

(단위 : %)

| 연도 (기간) | 최근 1년차 '18.06.01~'19.05.31 | 최근 2년차 '17.06.01~'18.05.31 | 최근 3년차 '16.06.01~'17.05.31 | 최근 4년차 '15.06.01~'16.05.31 | 최근 5년차 '14.06.01~'15.05.31 |
|------------|-------------------------------|-------------------------------|-------------------------------|-------------------------------|-------------------------------|
| 종류A | 3.11 | 16.00 | 17.44 | 0.73 | 13.81 |
| 종류C | 2.80 | 15.66 | 17.09 | 0.42 | 13.47 |
| 투자신탁 | 4.42 | 17.47 | 18.91 | 2.03 | 15.24 |
| 비교지수 | 2.04 | 17.30 | 17.66 | -0.76 | 7.74 |

상기사항은 대표종류 수익률만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종류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주요투자위험 | 투자위험 주요 내용 |
|---------|---|
| 원본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요 운용위험 |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며 소수 종목 혹은 특정 지역(국가) 및 일부 산업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등이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외 주요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되었으며,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이 **12.69%**로서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구분 | 세부 내용 |
|----------------------------|--|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통화선물거래 등을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예정입니다. |
| 환헤지 방법 |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목표 헤지비용 | 외화자산 대비 90% 이상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이나,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정보

(1) 과세

※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및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알림]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은 Dow Jones Indexes의 상품이자, CME Group Index Services LLC("CME")의 등록상표로,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Dow Jones®",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DJIASM" 와 "Dow Jones Indexes"는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Dow Jones")[CME에게 라이선스 허가]의 서비스 상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사용을 (재)허가합니다.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와 관련하여 Dow Jones Industrial Average(DJIA)와 각각의 서비스상표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외에는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보증, 추천, 판매 또는 판매촉진
-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에 투자할 것을 추천
-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에 대한 시기, 금액 또는 가격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 또는 내려진 결정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부담
-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의 관리, 운용 또는 마케팅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 부담
- Dow Jones Industrial Average(DJIA)을 결정, 구성 또는 계산하는데 있어,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자나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를 고려하거나, 고려해야 할 의무 부담
- 위에도 불구하고 CME Group Inc와 그 계열회사들은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사가 설정하는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주식)과 무관하지만, 유사한 상품으로서 경쟁관계인 금융상품을 독립적으로 발행 또는 후원할 있음. 더 나가 CME Group Inc와 그 계열회사들은 DJIA의 성과와 연관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활동이 DJIA와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

음.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특별히,

o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다음과 관련하여 모든 보증을 부인합니다:

- 미래에셋 미국블루칩 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또는 DJIA나 이 지수에 포함된 데이터의 사용과 관련된 사람들이 획득할 결과물;
- DJIA나 이 지수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
- DJIA나 이 지수 데이터의 특정목적 또는 사용에 있어서 시장성과 적합성;

o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DJIA나 이 지수 데이터의 어떠한 오류, 누락 또는 중단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o 어떠한 일이 있어도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은 이익의 감소 또는 간접적, 징벌적, 특정한 또는 결과적 손해 및 손실에 대해 결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Dow Jones나 CME 및 각각의 계열회사들이 이런 사실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수들과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은 오로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며, 제 3자의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Disclaimer]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is a product of Dow Jones Indexes, a licensed trademark of CME Group Index Services LLC ("CME"),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Dow Jones[®]", "Dow Jones Industrial AverageSM", "DJIASM" and "Dow Jones Indexes" are service marks of Dow Jones Trademark Holdings, LLC ("Dow Jones") [and have been licensed to CME] and have been [sub]licensed for use for certain purposes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have no relationship to the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other than the licensing of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 and their respective service marks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do not:

- Sponsor, endorse, sell or promote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Recommend that any person invest in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Hav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or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timing, amount or pricing of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Hav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management or marketing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 Consider the needs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or the owners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in determining, composing or calculating the DJIA or have any obligation to do so.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CME Group Inc. and its affiliates may independently issue and/or sponsor financial products unrelated to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currently being issued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but which may be similar to and competitive with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In addition, CME Group Inc. and its affiliates actively trade financial products which are linked to the performance of the DJIA. It is possible that this trading activity will affect the value of the DJIA and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will not have any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MiraeAsset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Specifically,

o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do not make any warranty, express or implied, and Dow Jones, CME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disclaim any warranty about:

oThe results to be obtained by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the owner of the MiraeAsset MAPS US Blue-Chip Index Equity Investment Trust1 or any other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DJIA and the data included in the DJIA;
o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DJIA or its data;
oThe merchantability and the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or use of the DJIA or its data;
oDow Jones, CME and/or their respective affiliates will have no liability for any errors, omissions or interruptions in the DJIA or its data;
oUnder no circumstances will Dow Jones, CME and/or their respective affiliates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or indirect,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or losses, even if they know that they might occur.
The licensing relating to the use of the indexes and trademarks referred to above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is solely for the benefit of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and not for any other third parties.